

백인회중과 한인회중이 함께한 26년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100주년 창립기념예배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가 지난 14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1911년에 30여 명의 백인 감리교 성도들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6년 한인회중이 들어와 크게 부흥해 2005년 7월에 백인교회와 합병했다.

샌퍼난도벨리에 위치한 밴나이스 연합감리교회(오경환 목사)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14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이 교회는 1911년 30여명의 백인 감리교 성도들에 의해 설립돼, 1912년 연회로부터 감리교회로 승인받고 C.C Harzler 목사가 첫번째로 파송됐다. 한인회중이 들어선 것은 26년 전이며 그후 교회가 크게 성장해 한인교회와 백인교회가 합병했다.

이 교회 한인회중 1대 담임목사인 김동형 목사는 '100주년을 맞이하며'(요 17: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미국회중이 한인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고 노력해 주셨다. 그리하여 많은 목회자, 전도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며 "시편 133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하며 요1서 4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국회중, 그리고 한인회중에 영원히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오경환 담임목사는 "1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쳐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서는 노스지방회의 새 들릭 감리사가 축사를 하고, 그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회자들이 초청되는 등 축제의 장이 됐다. 또한 100년의 역사를 영상과 찬양으로 보는 시간이 있었으며, 이 교회 영어부·

한국어·유년부·중고등부 성가대가 연합 찬양, 밴나이스·리팔마·윌셔연합감리교회 찬양대가 연합 찬양을 하는 등 은혜를 더했다.

이 교회는 1911년 밴나이스 시티가 생겼을 때, 한 부유한 목장주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세워졌다.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의 섬김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주 3회 점심 무료 제공,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패턴디자인, 헤어컷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매해 여름에는 교회 성도들이 멕시코 인디오 선교를 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다.

주소: 6260 Tyrone Avenue Van Nuys, CA 91401
문의: 818-785-3256 토마스 맥 기자

“이민교회 참여 저조해 안타까워”

시티하베스트교회서 2012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기도회 가져

2012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10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Crenshaw Christian Center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서는 동양인, 백인, 흑인, 라티노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도덕적 부패를 회개하고 동성애법 반대와 북한 탈북자 송환 반대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이 기도회에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대회 대표 안드레이드 목사가 자리해 힘있게 기도했다.

전 목사는 “27일 연합기도대회에서는 도덕적 부패를 회개하고, 미국 선거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거에 나온 후보를 보면 참된 기독교인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에 침례교인이라고 했지만 점점 무슬림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롬니는 물몬교인, 그리고 부통령 후보 두 명도 가톨릭교인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을 봐도 3명이 가톨릭교인이고, 3명이 유대인들로, 기독교인은 1명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중요한 기도제목을 놓고 모아야 하는 이 때, 연합기도대회에 한국교회 참

여가 저조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럴 때 울부짖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드 목사는 “지난해 로즈볼 대회 때 많은 이들이 유명한 강사도 없이 대회를 치르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 걱정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보았다”며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했지만 대회 세트장 설치에 필요한 볼트가 없어서 그날 구입해 설치를 하면서 시간이 지체돼, 오후 1시가 넘어서 집회를 시작했다. 더군다나 비가 오기 시작했지만, 로즈볼 경기장 앞에는 비가 오지 않는 기적을 많은 이들이 체험했다. 또 고위 공직자인 한 유대인이 치우돼, 정부 회의에서 로즈볼기도대회 동영상을 틀어 주는 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평생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로즈볼이 열리기 두 달 전에 내가 꿈을 봤는데, 꿈에서 대회를 마치고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누군가 필요한 돈을 주고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금액 이상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구하자”고 말했다.

한편, 2012 다민족연합기도대회 한인회중 집중 참여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이다. 토마스 맥 기자

OC교협 을 회기 마지막 월례회 개최

11월 15일 나침반교회에서 정기총회 앞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1일 일반인브리짓교회(윤덕곤 목사)에서 금년도 마지막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주요 임원들을 비롯한 소속 목회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월례회에서는 사역보고에 이어, 오는 27일 열릴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대한 안건을 주로 다뤘다.

특히 지난해 11.11.11 로즈볼연합기도대회 대표를 역임한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가 참석해 이번 행사 취

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OC교협 임원들은 “라티노, 흑인, 백인, 아시아 등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미국과 전 세계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한 기도대회에,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한인 기독교인들이 빠져선 안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OC교협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신임 임원을

선출하고 1년의 사업과 계획을 결정하는 이 총회에서 신임회장인 현 수석부회장인 민경엽 목사가 자동 승계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지난 회기 OC교협은 매년 주최하는 부활절연합예배에 이어 사모 블레싱 나잇, 오정현 목사 초청 영적 대각성 집회, 주일학교 교사 및 목회자 세미나 등 현장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합 사역을 펼쳤다.

특히 수정교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미국교계를 향한 한인들의 애정을 보여주었고 그 연합선상에서 이번



OC교협 임원들이 11월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월례회를 열었다. 다민족기도대회도 연합회 차원의 참여를 결의했다. 또 수정교회에서 신천지의 집회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 이단 대책사역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정하나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HANA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0H66712

하나보험에서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하여 메디케어 / 메디칼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 헬스의 세미나는 특정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세미나입니다.

- 메디케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 메디케어의 Part A, Part B, Part C, Part D란 무엇인가?
-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과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자격 조건과 혜택은?
- 2013년에 변화되는 메디칼 혜택은?

AEP (Annual Election Period)기간에 점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2012 AEP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니다.
- Part C 플랜이나 Part D플랜의 혜택의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원래의 메디케어 혜택을 원하실 때, 플랜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 ▶ 10월 20일 토요일
LA office 10:00~12:00
Rowland Heights office 2:00~4:00
- ▶ 10월 27일 토요일
LA office 10:00~12:00
Buena Park office 2:00~4:00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하나헬스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LOS ANGELES	ORANGE COUNTY	ROWLAND HEIGHT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David Kang LIC# 0F16211 Cell 714-614-0903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Allen Min LIC# 0D19973 Cell 213-272-2412	1722 Desire Ave. Suite.106 Rowland Heights, CA 91748 Mi Young Hong LIC# 0672051 Cell 714-715-6345

*하나헬스와 함께하실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Medicare Part 'C' Plan 전문 회사인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에서는 소수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신 보험 Agent를 LA 와 OC 에서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현재 보험 License가 있으신 분이됩니다.
모든 Training과 Certification 교육을 도와드립니다.

건강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광고용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는 사회 서비스 기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주무관청(CMS) 혹은 사회보장국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혜택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드리며 여러분이 어떤 플랜을 선택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 213-500-4563
Customer Service
1-855-386-3088

중보기도, 전교인이 참여하는 전교회적 사역

나성순복음교회, 이성자 목사 초청 중보기도 세미나 열어

나성순복음교회가 중보기도를 사역적 측면에서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비전 아래 체계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미 나성순복음교회는 과거에도 새벽기도회, 수요, 금요예배에서 성도 개개인의 문제를 비롯해 남가주 교계 및 타 교회,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 등을 위해 중보기도 해 왔지만 '중보기도의 사역화'라는 비전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도의 특권이란 사실을 재확인하고 모든 성도가 중보기도 사역자화 되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대다수 사역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헌신자가 필요하지만 중보기도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전교회적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결과 면에서 성도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는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더욱 일치단결될 수 있고 미국과 한국, 세계를 놓고 기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나성순복음교회가 영적 능력을 체험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실천적이고 고백적인 교회가 되는 것도 큰 유익이자 목표다.

특히 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인 진유철 목사가 현재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으로, 차기 회장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나성순복음교회가 개교회를 넘어 남가주와 전미주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비전은 교계 내외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며 먼저 각종 중보기도회가 신설됐다. 순복음교



강사 이성자 목사(인터네셔널갈보리교회)가 중보기도에 대해 강의했다.

회라는 특성상 이미 교회 내에 많은 기도회가 있지만 몇가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분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동안 따로 마련된 중보기도실에서 그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열린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전에는 예배와 성도 개개인의 문제, 교회 전체의 기도제목 등을 위한 기도회도 열린다. 미국과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도 열릴 예정이다.

전교회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에 교회 입장에서는 큰 규모의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노릇. 그러나 나성순복음교회는 현재의 교구와 구역, 기관을 적극 활용해 외형적인 면에서는 최소의 에너지만을 투입하고 모든 에너지를 오직 기도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는 버지니아에 소재한 인터네셔널갈보리교회의 이성자 목사를 초청해 중보기도 세미나를 열

었다. 인터네셔널갈보리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비전으로 창립돼 현재도 미국 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중보기도하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1997년 이성자 목사가 개척해 현재 1천 명 규모로 성장했다. 교회의 위치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 근처이다 보니 이 지역에서 열리는 주류교계의 중보기도회에도 적극 참여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 목사는 이 세미나에서 중보기도를 통해 얻은 많은 간증을 함께 나누며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했다. 특히 11일 목요일 '중보기도 헌신자를 위한 특별세미나'에는 무려 2백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중보기도자가 될 것을 서약하기도 했다. 진유철 목사는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의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 희망과 빛이 되는 성도가 되자"고 격려했다. 김준형 기자

제3성전 美 극장 개봉 앞두고 귀추 주목

김종철 감독 UBM교회서 시사회 갖고 기도 요청



다큐멘터리 영화 '제 3의 성전'에 대해 설명 중인 김종철 감독

메시야니즘을 소재로 한 영화 '회복'과 팔레스타인 크리스천의 삶을 그려낸 영화 '용서'로 연이어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김종철 감독이 그의 야심작 '제3성전' 극장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가졌다. 13일 오후 UBM교회(앤드류 김 목사)에서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제3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제3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영화 제작은 거의 90% 완료된 상태.

이날 시사회에서 김 감독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3성전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도 믿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보고 싶었다"면서 "영화에서는 '제3성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팩트를 담았고, 이에 대한 미국 신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제3성전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은 "제3성전에 대해 듣긴 들었으나,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이 영화는 미국에서 먼저 개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시사회에 앞서 김 감독은 미국 극장가 영화 개봉을 위해 알바인에 위치한 채널 'TVN' 관계자들과 만나 미팅을 가진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할리웃에서 한국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작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가 제작한 영화 '회복'과 '용서'는 300만 관객을 돌파해 한국 기독교 영화 사상 최대 관객을 동원한 만큼, 이번 영화 개봉을 앞두고 미국 할리웃 영화계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한나 기자

창립 27주년 맞은 웨스트힐장로교회 27명의 임직 세위



웨스트힐장로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27명의 임직을 세웠다.

림형석 목사 "잘 따르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당부

웨스트힐장로교회(김인식 목사)가 창립 27주년 기념 임직식을 14일 오후 4시에 열었다.

이 교회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27주년 기념 부흥사경회를, 림형석 목사(평촌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했으며, 이날 임직식까지 개최해 은혜를 더했다.

이날 장로장립 3명, 권사취임 2명, 권사안수 7명, 안수집사취임 및 집사

안수까지 15명 등 총 27명이 임직됐다.

"잘 따르는 지도자가 되십시오"(막 1:17)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림형석 목사(평촌교회)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순종의 마음으로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임직자 대표로 인사한 황승욱 장로

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축하해 주러 멀리서 오신 목회자분들과 하객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주소: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문의: 818-884-2391

토마스 맹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이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품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남가주 영적 대기각성집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인 교회들의 영적 대기각성과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한국에서 크게 쓰임받는 말씀의 종 윤호균 목사님을 모시고, 각 지역에 영적 대기각성 집회를 준비하여 남가주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변영익 목사

집회일정	교회명 (담임: 목사)	주소
10월 24일(수) 저녁 7시 30분	은누리교회 (담임: 유진소 목사)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el. (818) 834-7000 / www.anconnuri.com
10월 25일(목) 26일(금) 새벽 5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323) 913-4499 / www.lafgc.com
10월 26일(금) 저녁 7시 30분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6200 / www.gracemi.com
10월 27일(토) 저녁 7시 30분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10월 28일(주일) 오전 11시	벤델장로교회 (담임: 변영익 목사)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323) 937-1732 / www.bedel.org

윤호균 목사 프로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총협의회 회장 역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적각성위원장 역임
- 경기도경찰청교경협의회 총재 역임
- 세계선교협의회 총재
- CTS 기독교 TV 특강 및 설교전임강사
- CBS 기독교방송 특강 및 설교전임강사
- 2008년 대한민국 방송설교대상 수상
- 2011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수상
- 2011년 대한민국 참목자 대상 수상
- 화광교회 담임

문의 총 무: 박세헌 목사 (323)404-3147 사무국장: 양경선 목사 (213)255-1725

“이웃에 사랑을” 나성영락교회 2012 나눔축제

올해로 제6회 맞이해

나눔 통해 지역사회 단체 후원

나성영락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2012 나눔축제를 개최했다.

교회는 각 목장별로 준비한 아동복, 가방, 남녀 의류, 잡화, 액세서리, 가정용품 등 다양한 품목과 신선한 과일과 곡류, 음식 등을 판매했다. 또한 경매부스에서 서울왕복 항공권, 유명식당 식사권, 미용실 이용권, 한의원 진료권 등도 판매됐다.

전교인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나눔 축제 수익금은 EI ARCA, Asian Rehabilitation Service, Goodwill, Pacific Bridge Adult Residential Facility, Community Special Program, Asian Pacific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작은 예수회, Lanterman Regional Center 외 교회 내 어려운 가정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지적, 정신적 및 발달 장애인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게 전달된다.

토마스 멩 기자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참여 가운데 나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필요만 공급받는 팬 No! 사명 감당하는 성도 Yes!

장학봉 목사 초청 부흥집회 가진 나성금란교회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윤선식 담임목사)가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한국의 성안감리교회 담임 장학봉 목사(53)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서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간 장학봉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 선교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애실랜드대학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으며 극동방송 5분 칼럼 및 ‘성경 속 여인열전’ 진행, CTS ‘장학봉의 해피 바이블’ 진행 등 언론을 통해 교계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집회 내내 적재적소에 유틸리티와 유머를 던져 좌중을 휘어잡으면서 “신앙이 재기해야 삶이 재기한다”는 단순

한 진리를 전하고자 애쓰는 흔적이 엿보였다.

집회 첫날인 12월 저녁 7시 30분,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을 향해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면서 그는 먼저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산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과 ‘된다’고 하는 사람. 둘 다 맞는 말이다. 왜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찾으니 안 되고,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이유’만 찾으니 되기 마련이다. 한 마디를 해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언어가 바뀔 때 삶이 바뀐다. 복된 말이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이어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반석”이라며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것”이라며 “교회는 팬클럽이 아니다. 십자가는 없애지고, 나의 필요만을 공급받기 원하는 ‘팬’들이 아닌, 사명과 고난과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어있는 신앙의 불순물들을 도려내고, 영적 굳은 살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아들을 예일대 전액 장학생으로 키워내 화제가 된 바 있는 그는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일이 있는지 돌아



장학봉 목사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말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보길 바란다”면서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믿음이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7세 때부터 첼로를 시작한 장남 성찬(22) 씨는 예일대 음

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9월 노스웨스턴대 음악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꿈이었던 동생 희찬(23) 씨는 지난 9월 예일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정한나 기자

2년째 매달 2차례... 사랑의 무료 급식

해피빌리지 기부금으로 훈훈한 사랑 전해



지난 11일 방주교회는 사랑의 무료 급식행사를 열어 2백 여명의 독거 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가운데, 한인 노인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사랑을 전하는 자선행사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버몬트와 피코길 인근에 위치한 핑그리교회에서다.

그간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에 앞장서 온 방주교회가 한 달에 두 차례씩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무료 급식행사’다. 어느덧 행사를 시작한 지 2년이 훌쩍 지났다. 이제 정착 단계를 맞은 이 행사를 그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대안 담임인 김영규 목사의 공이 크다. 그는 한국에서 평택대학교와 백석대학교(M.Div.)에서 수학과

나눔 사역을 위해 도미, 7년 전부터 자바선교회를 창립해 선교활동을 해 왔다.

자바선교회는 LA 한인 경제의 심장부이자 세계 최대의 의류시장 중 하나인 자바시장이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된다는 비전 아래, 상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한다. 상인 한 명이 바뀌면 한 나라를 책임질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바시장은 선교의 잠재 인력들이 물려드는 곳이다.

김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방주교회

의 교인 대부분은 실제로 자바시장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서는 특별히 미주중앙일보 산하 비영리단체 해비빌리지가 최근 한인 커뮤니티 마라톤 자선행사인 ‘사랑나누기 5k 마라톤’을 통해 모인 수익금 가운데 1,500달러를 기부했으며, 한미은행 내 자원봉사 단체인 ‘한미 네이버’의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해 배식을 도왔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2백 여명의 한인 독거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점심식사와 함께 극세사 모포가 전달됐다. 정한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일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유틸리티와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207L Lajolla Fairfax ORT 메트로 Wilshire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T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사랑의띠선교회 LA 선교 집회

사랑의띠 선교회 선교집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정남준 목사
• 엘림선교회 조직위원장
• 인천함정교회 담임목사
• 대한 예수교 경로의 협동
모수총회 중경총회장



고창수 목사
• 엘림선교회 사무총장
• 엘림교회 담임



김천환 선교목사
• 엘림선교회 LA지부장

일시 10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강사 정남준 목사

일시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강사 고창수 목사

장소 사랑의 띠 선교회(한국엘림 장애인 선교회 LA지부)
1300 W. Olympic Blvd.#200 LA CA 90015

문의 김천환 목사
(213)736-6625

담임목사 청빙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는 교회설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1.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M, Div) 이민목회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2.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자.
 3.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자(우선)
-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3. 학력증명서 사본
 4. 목사 안수증서 사본
 5. 추천서 2통(추천인이 직접보냄)
 6. 설교 2편 (CD 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 보낼곳**
이메일: sangwoo@sbcglobal.net
담당자: 당회서기 우상욱 장로
서류접수 마감일: 2012년 10월 30일
- 참고사항**
 1. 모든 서류와 문외는 이메일로 만 받습니다.
 2. 모든 제출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3. 서류심사후 청빙후보가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 통지에 드리며 교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후에 영상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교회 웹사이트: www.arkmissionchurch.org

새크라멘토 방주선교회 임시 당회장 임동하 목사
Ark Mission Church, P.C.A

단신

열린말씀 컨퍼런스
“거룩한 소통: 복음적 대화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린말씀 컨퍼런스가 10월 26일(금)부터 28일(토)까지 한길교회에서 열린다. 양일간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집회가 있고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집회가 있다. 강사는 김삼열 목사, 김태권 목사, 김한요 목사, 노진준 목사, 박성일 목사, 박영배 목사, 최정권 목사, 한성운 목사다.
주소 및 문의: 4050 West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323-735-0200

나성서부교회 추계 말씀 집회
나성서부교회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추계 말씀집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김인식 목사, 박성규 목사, 이정현 목사다. 11월 4일 11시에는 안수집사 임직식을 거행한다.

남가주 영적 대각성 집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 주최로 남가주영적대각성집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세계선교회 총재인 윤희균 목사다. 집회는 24일 오후 7시 30분에는 ANC은누리교회에서, 25일, 26일 오전 5시 30분에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26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은혜한인교회에서, 27일 오후 7시 30분에는 열바인침례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323-404-3147, 213-255-1725

베델한인교회 부부축제
베델한인교회는 청장년 부부를 위한 부부축제를 11월 17일부터 18일 양일에 걸쳐 연다. 강사는 손인식 목사 와 박수용 장로이며 30~50대 청장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비는 20불이다.
주소 및 문의: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949-854-4010

베델한인교회 추계 대각성 부흥회
베델한인교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를 초청해 추계대각성 부흥회를 열 예정이다.

제5회 환태평양 기독교 영화제 (PPFF)
제5회 환태평양 기독교영화제가 10월 18일(목)부터 21일(주일)까지 웨스트필드 산타아니타 AMC극장에서 개최된다. 상영 일정은 18,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21일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20일 오후 7시 30분에는 환태평양 영화시상식이

진행된다.
영화제 홈페이지: www.ippff.com
문의 : 626-445-6255

이영훈 목사 초청 집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초청 연합집회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LA에서 열린다. 교회성장연구소가 주최하는 이 집회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교협, OC교협, 남가주목사회 등이 공동후원한다. 이번 집회에는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열리며 세미나 강사로는 교회 부임 5년 만에 5,000명으로 부흥시킨 안양제일교회의 홍성욱 목사 등이 선다.

UBM교회 사립학교, 가을학기 학생 전격 모집
개교회 차원의 기독교학 건립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UBM교회 사립학교(최인자 교장)가 지난 11월부터 2012년 가을학기 학생을 전격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다. 올 여름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는 이 학교는 ACE(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해 운영중으로, 이는 40년 된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홈스쿨링 제도이다. 문의: 562-903-2600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기독교 역할”

10월 22일 오후 4시 LA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독 아카데미 주최



존 캅 박사

오는 10월 22일(월) 오후 4시 LA연합감리교회(김세환 목사)에서 기독 아카데미 주최로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이란 주제의 신학 세미나가 열린다.
강사는 존 캅(클레어몬트신대학원, 클레어몬트대학원 명예교수) 박사다.
그는 과정철학자인 화이트헤드의 영향을 받아 사물보다는 사건 속에서, 본질보다는 활동 가운데서 “완성된 창조”보다는 “과정 중에 있는 창조”에서 인간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과정신학을 주장했다.

또 정치신학, 종교다원주의신학, 생태학적 신학 등의 여러 신학 이론을 발표했으며 은퇴 후에는 평신도 신학을 통해 교회 살리기에 주력해왔다.
감리교 신학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20불이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818-429-5624, 805-377-9110, umcpaulykim@yahoo.com, 기독아카데미(kidokacademy.com)으로 하면 된다.
장소: LA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한주연 기자

Higher Calling 2012, 12월 26일 샌디에고에서

마일스 맥피어슨 목사, 켄 햄 목사, 박형은 목사, 김동환 목사 등 강사로



지난해 선교 대회 장면

미주 대학생들과 10대들을 깨우기 위한 비전컨퍼런스가 12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샌디에고 '타운 & 컨트리 호텔 컨벤션센터'(500 Hotel Circle North, San Diego)에서 열린다.
미주한국대학생선교회(KCCC USA·대표 김동환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샌디에고 The Rock Church 마일스 맥피어슨 담임 목사, 창세기 권위자이자 변증학의 선구자인 켄 햄 목사,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KCCC USA 대표 김동환 목사 등이 강사로 선다.
컨퍼런스 일정은 매일 아침과 저녁 집회와, 50여가지의 선택식 특강, 전

도훈련, 순모임 등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작년 선교 대회를 통해 2,600여 젊은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900명이 단기선교 참여를 결단하고 그중 700명이 선교를 떠나는 결과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컨퍼런스에서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회를 맡고 있는 김동환 목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장이 거의 없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인생과 신앙의 극적 변화를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다. 약 1,300명에 달하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차세대를 위해 모두 마음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2월 9일까지 등록하면 190달러이며, 그 후에는 240달러이다. 문의: 213-389-5222 한주연 기자

미주성결교회 교역자회 기도회 열려



미주성결교회(총회장 김광열 목사) 엘에이지방회(회장 김희창 목사)가 교역자회 기도회를 예향성결교회에서 10월 15일 개최했다.
김희창 목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중호 목사(예향성결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고전16:19-20)”란 주제로 설교했다. 특별히 마련된 기도 시간에서는 소중하신사람들의 김수철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이뤄졌다. 또 선교적 사역 확장을 위해, 미주성결교단과 미주성결대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대선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최정학 장로(LA해군동지회장)가 특별 인사를 전했다. 10월 27일 열리는 다민족기도 대회 관계자들이 방문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번 기도회에는 무려 50여명이나 되는 교역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11월 4일 개최되는 하늘소망교회(김덕수 목사)를 축복하고 지방회 내에 개척되지 얼마 안된 교회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11월에는 남가주성결교회 은퇴목사회의 52명 교역자들을 팜스프링스로 초청해 위로회도 가질 예정이다.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

Doctor of Ministry (D.Min.) 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래어몬트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래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 기관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증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교 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 가지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교육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래어몬트신학대학교의 실천신학목회학 박사 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촉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 입니다.

[입학원서 마감일]

- ▶ 2013년 1월 입학: 2012년 11월 10일 경
- ▶ 2013년 6월 입학: 2013년 3월 10일 경

참고

입학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강날짜에 대한 최종결정은 각각 2012년 11월말과 2013년 3월말에 내려집니다.

[입학요건]

- M.Div. 학위 혹은 동등학위 소지자 (동등학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학교 웹사이트 참고) <http://media.cst.edu/uploads/genericfile/korean-d-min-application-instruction.pdf>
- 각 학위성적(GPA) 3.25이상 선호
- M.Div. 학위나 동등학위 취득후 3년 이상의 사역경험
- 본 과정은 한인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교수가 한인교수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 수업료: 학점당 미화 680불(3년 동안 총32학점 수강)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 최고 지도자 과정" 수료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www.cst.edu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ndmin@cst.edu
Tel: 1-973-713-3009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63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어린이에게까지 동성애 교육 강요하지 마라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서울시민들 반발



12일 서울시민들이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서울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서울 시의회가 엄청난 비난 가운데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로도 모자라,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또다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교사연합 등 교사와 학부모 단체 등 수백여 곳의 시민단체는 12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발의안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후유증, 역풍을 불러왔던 학생인권조례와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이라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 사후매수죄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교육감 권한대행이 학교별 학칙 자율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동성애·성적지향과 임신·출산 등 성적 문란을 방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또다시 제정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발의 과정에서 공청회나 조례안 전문 공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

최 14일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함에도 겨우 3일 전에 공시했고, 조례안 전문을 요구했지만 개괄적 내용들만 제공하면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소위 '성소수자(동성애자·성전환자)' 및 임신·출산의 이유로 차별금지, 특정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 강요 금지, 체벌 금지 등 문제의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다른 관계자는 "조례에 따르면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거나 가르치면 조례 위반이라는 게 말이 되는 가"라며 "이러다 다른 나라처럼 성교육 시간에 항문성교도 정상적인 것처럼 교육하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자유계시판에는 이번 인권조례안 제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는 시민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결사 반대한다"며 "조례안이 폐기될 때까지 조례안 반대 1천만 서명운동과 서울시당 퇴진 운동을 펼칠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서울시의회 의결안 재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웅 기자

3천여 목사·장로·여성, '북송반대' 목소리 낸다

탈북교연, 특별기도회 개최와 지도자단 결성 계획 발표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이하 탈북교연)이 3천명의 목사, 장로, 여성지도자를 모아 북송반대 등 북한인권을 위한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탈북교연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 '다사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지동 서울교회에서 제2차 탈북난민 북송반대 및 북한구원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목사·장로·여성지도자 각 3천인(이하 3천인 지도자단) 출범대회를 함께 갖는다.

그간 탈북난민 북송반대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탈북교연은 이번 3천인 지도자단 결성을 계기로 정부 등 한국사회에 보다 큰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3천인 지도자단 결성은 지난달 미국 KCC 대표간사인 손인식 목사(베델한국교회)가 한국을 방문, 이같은 조직의 결성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손 목사는 미국에 '북송반대 3백인 목사단'이 있다는 것을 들어 한국에서도 같은 조직이 결성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탈북교연측에 전달했다.

이에 탈북교연은 김경원(합동), 김영환(기감), 양병희(백석), 이정익(기성), 이종윤(통합), 최성규(기하성) 목사 등을 상임대표로 추대해 '탈북난민 북송반대 북한구원 3천인 목사단'을 결성했다. 이후 이 소식을 접한 장로들과 여성지도자들이 참여를 요청,



(왼쪽부터) 탈북교연 공동회장 서경석·송기성 목사, 3천인 지도자단 공동대표 이종윤·이수영 목사, 탈북교연 공동회장 및 사무총장 김충립 박사.

3천인 지도자단 결성이 추진됐던 것이다. 탈북교연은 "향후 3천인 지도자단은 탈북난민의 인권과 북한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기도회를 열고, 동시에 강제북송이 중지되는 그날까지 두 달에 한 번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북송반대 전 세계 집회에 적극 동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중북세력 청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3천인 지도자단은 25일 특별기도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 성명에 동의하는 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3천인 지도자단은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 ▲북한인권법 제정 ▲WCC·WEA의 북송반대·북한인권개선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장 표명 ▲중북세력 척결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탈북교연 서경석 목사는 이번 특별기도회와 3천인 지도자단 결성에 대해 "북송반대 등 북한인권을 위한 운동에 한국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나선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행사는 그 어떤 정치적 입장도 담고 있지 않다. 북한인권 개선과 중북세력 척결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신앙적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북교연은 25일 행사를 준비하는 모임을 오는 18일 아침 7시 30분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에서 갖기로 했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제2차 전 세계 동시다발 북송반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연합의 사단법인화 자금 3억, 누가 냈나

이단자금 유입설 등 다양한 의혹 제기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이하 한교연)을 처음 창립하던 당시, 한기총 집행부에 비판적이던 이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새로운 제3의 연합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한기총 개혁이 아니라 한국교회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교연의 전신인 한기총 정상화 비대위 역시 제3의 연합기구를 설립할 뜻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에 한교연측에서는 제3의 연합기구 창립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을 펼쳤다. 창립 당시 현수막에도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한국교회연합 창립 총회'라고 써붙였고, 김요셉 대표회장 등 지도부들도 "궁극적으로는 한기총과 다시 통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덕분에 한교연은 창립 당시 한기총 분열에 대한 책임론과 반발을 조금은 무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교연에서 한기총 개혁이라는 구호가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한교연의 사단법인화였다. 한교연은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법인화를 추진했고, 약 두 달 전 이를 마무리했다.

여기에 대해 한교연을 지지하던 이들조차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한 교계 지도자는 "한장총도 몇십년 동안 사단법인화하지 않고도 잘 활동해왔는데, 한교연은 창립하자마자 부랴부랴 사단법인화하여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을 고착화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결국 한기총 정상화라는 구호는 분열의 책임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사단법인 자본금 3억 출연자 사무총장도 '모른다'

사단법인 설립에 들어간 막대한 자본금의 출처도 투명하지 않다. 주무관청인 서울시청 관계자는 "한교연이 사단법인 승인 당시 기본재산으로 현금 3억원과 사무실 보증금 5천만원 가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한 사람이 현금 3억 전체를 냈는데, 그가 누

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던 당시 한교연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던 형편이었기에, 갑작스레 3억이란 거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 것은 당연했다. 더욱이 한교연측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큰 공로자인 재산 출연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깊어져갔다.

최근 대기발령을 받은 한교연 안준배 사무총장조차도 3억원을 누가 출연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사단법인과 관련된 업무 일체에서 나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 분위기는 금융실명제로 모든 자금의 흐름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 제재까지 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한기총을 개혁하자며 출범한 교계의 공적 연합기구가, 무려 3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미심쩍은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한교연이 3억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이단의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은 아닌지, 혹은 누군가가 이처럼 거액의 자금을 담보로 연합기관을 사조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무 없이 사무총장이 행정과 재정을 총책임하는 현 한교연의 체제에서, 사무총장인 안준배 목사를 사단법인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한교연 사조직화 시도의 일환일 수도 있다.

김요셉 대표회장은 이단자금 유입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한교연에는 조금의 재정보도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3억원 출연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밝힐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한교연 사단법인 자본금 3억의 출처와 목적은 무엇인지, 사무총장도 소외된 재정과 행정 문제의 실질적 주도권자는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는 없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계획이다.

류재광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WCI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안전한 인터넷 쇼핑몰 www.KBSmall.com

가을 햇 산삼

3차 가격파괴 대세일

3차 가격파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올해는 가뭄에 폭서로 인해 심마니들의 활동이 부진하여 산삼 유통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현지 딜러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끝에 종전 가격대에 대량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나 충분한 공급량이니 서둘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된 천종산삼 3차 가격파괴 가격표

	산삼수령	뿌리당 무게	파운드당 가격/454g
1호:	60-120년근	23-35g	\$2,400 → \$1,700
2호:	50-80년근	15-22g	\$1,700 → \$1,200
3호:	30-50년근	9-14g	\$1,400 → \$1,100
4호:	20-30년근	5-8g	\$1,200 → \$850
5호:	10-20년근	2-4g	\$900 → \$550

특호와 150년 이상된 스페셜 진귀산삼은 뿌리당 별도 가격이 적용됩니다

생삼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검역소, 면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HQ

山蔘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산삼의 가격 **3차** 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싱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씻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전속모델 **탈런트 박영지**

~~70그램~~ **130그램** / 평균 10-30년근 30~40뿌리



\$200
소매가
~~\$1,000~~

~~200그램~~ **270그램** / 평균 40-50년근 20~30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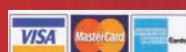
\$600
소매가
~~\$3,000~~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월-금: 10am-7pm, 토: 10am-5pm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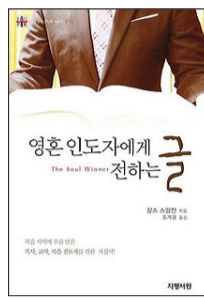
通

신간 추천

영혼 인도자에게 전하는 글

찰스 스펠전 | 지평서원 | 2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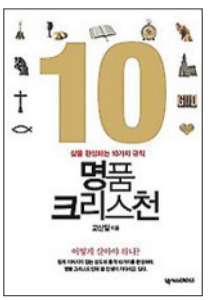
이 책은 '설교의 황제'로 불리는 찰스 스펠전이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와 같은 '영혼 인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영혼 인도자를 부르신 목적이 맡겨진 영혼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전한다.



명품 크리스천

고신일 | 넥서스CROSS | 204쪽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10가지 규칙을 보여 주면서 거룩한 삶의 길을 밝혀 주고 있다. 이 10가지 규칙은 소위 어디서 많이 듣던, 또는 웬만하면 알 만한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쉽다고 치부하며 지키지 않는 소중한 10가지 규칙이다. 이 규칙을 통해 명품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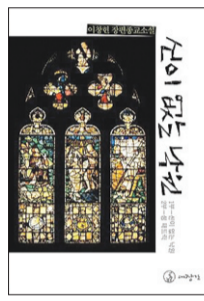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신이 없는 낙원

이창현 | 대장간 | 3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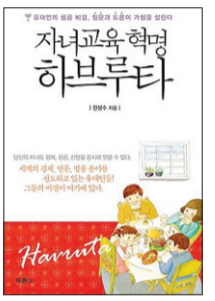
이 책은 작가가 만난 신(神)과 3년간의 프랑스 유학 생활에서 경험한 종교 문화적 충격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이 자전적 소설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인물 묘사를 통하여 그려낸다.



자녀교육 혁명 하브루타

전성수 | 두란노 | 342쪽

하브루타란 '짙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이 하브루타가 유대인으로 하여금 아이비리그에 30%나 입학하게 하고, 노벨상을 30%나 받게 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핵심 비결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구체적 방법이자 대안으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신앙과 실천으로 보는 메노나이트의 평화 개념

가이 허쉬버그의 <전쟁, 평화, 무저항>

'무저항(nonresistance)'은 종교 개혁 시절 메노나이트 교회 역사 초기부터 채택된 성서적인 제 1 원칙이자 삶의 길이였다. 당대 걸출한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역사가였던 가이 허쉬버그(Guy F. Hershberger)의 <전쟁, 평화, 무저항>은 '신앙과 실천으로 보는 메노나이트의 평화 개념'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소위 무저항(nonresistance)은 소극적이고 비자발적인 일반적인 개념과 달리, '선으

로 악에 맞서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의 제자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생물을 살해하지 말며, 남이 살해하고 있는 것을 용인하지도 않는 사상이서 나왔다.

16세기 재세례파 운동에서 출발한 메노나이트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다.

그 주요 특징은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철저히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신앙과 비폭력, 평화주의 등을 강조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나서

기도 한다.

<예수의 정치학(IVP)>으로 잘 알려진 존 하워드 요더가 대표적인 메노나이트 신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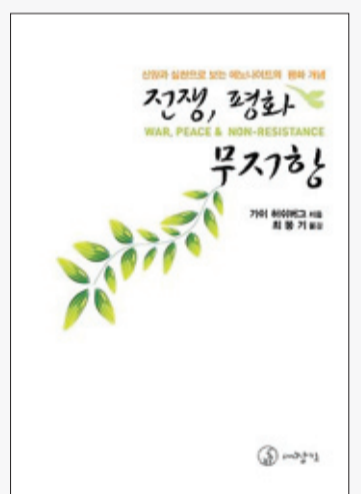
저자 가이 허쉬버그는 이 책에서 인류 역사와 함께한 전쟁, 구약에 나타난 전쟁과 평화, 신앙의 무저항 정신, 2천년 교회사 속의 전쟁과 메노나이트들의 활동 등을 되짚는다.

이를 통해 구약의 언약 아래에서는 전쟁이 허용되지만, 신앙에서는 전쟁이 금지되었음을 인정하는 언약 신학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이후에는 성서적인 무저항 운동이 무엇인지,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메노나이트 입장에서 가정과 기업, 인종과 국가 등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탐구하고 있다.

저자는 "성서적인 무저항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세상적인 평화주의에 대하여 기독교 복음의 진리로 도전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면서 "전쟁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다.



가이 허쉬버그 | 대장간 | 464쪽

이대웅 기자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2,490

•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타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최소 출발 기준 15명입니다
•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인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마감)/3월 11일(신청가능)/4월 1일(신청가능)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경험하는 만큼 이해합니다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지난 주간에는 권사님 두 분과 함께 루퍼스 병을 앓고 계시는 어느 권사님을 방문했습니다. 루퍼스 병은 면

역체계에 오류가 생겨서 자기신체조직을 외부물질로 오해하고 공격하는 병입니다. 함께 갔던 권사님 한 분은 누가 병들었다는 소식만 들으면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일찍이 큰 병을 앓아보셨기 때문에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경험하는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 본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병을 앓아본 사람은 병든 사람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세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내일 양식을 염려하는 그 적

막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는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이해의 폭도 넓어집니다.

물론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려 주셨습니다.

한 임금이 그의 신하들과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약 60억 달러)의 빚을 진 신하를 발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신하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엎드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하고 간청했습니다.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약 1천 달러)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당장 빚을 갚으라고 목살을 잡고 다그쳤습니다. 그의 동료도 앓으려 간구하며 애원했습

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동료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서 그 악한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경험이 항상 선하게 사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들이 재해석될 때에 비로소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을 기억의 창고에 묻어 두지 마십시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경험들을 다시 회상해 보고, 그런 경험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기쁨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엇갈린 십자가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이다. 혹 우리 아이들도 답안지에 "아빠인가"를 쓰는 날이 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아빠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버린 우리의 아이들보다, 문제야로 자라가야 할 아이들이 그나마 잘 자라준 사실이 아닐까? 부족하고 미안한 아빠들의 과거대로 아이들의 장래가 정해진다면, 얼마나 많은 아빠들이 자신이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나에게 자녀들은 "엇갈린 축복"의 산 증인들일 것이다.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엇갈린 축복!" 마치 147세의 노구 할아버지 아픔이 손자들을 축복하며 엇갈렸던 기도의 손은 자기가 마땅히 받을 축복을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아닌, 하나님의 엇갈린 축복으로 수놓은 간증의 세월이었음을 의미하듯이 말이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저주와 축복이 엇갈리는 장소다. 두 개의 나란한 직선이 인과응보대로 받는 심판이 아니라, 두 직선이 엇갈려 만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대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는 현상이 십자가다. 이 고백이 아빠된 나의 고백이기에, 난 오늘날도 잠든 우리 자녀들 위에 손을 얹고 엇갈린 축복을 간구한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고성방가(高聲放歌)'라 하는데, 이 사자성어를 초등학교에게 퀴즈를 내며 마지막 한 글자만 힌트를 주고 물어 보았다. '000(가)'

많은 단어들에 초등학교생들의 답안지에서 나왔다. 고음불(가), 이럴수(가), 미친건(가) 등등.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을 뒤집어지게 한 답안이 있었다. 그 답은 "아빠인(가)"였다.

폭소와 함께 쓸쓸한 미소의 여운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빠들은 아빠답지 못했던 미안함이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아빠와의 데이트"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 만약 그 나이에 해당되는 아들만 있다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수양회를 꼭 가고 싶은 심정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213) 402-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미국이나 한국은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가 핫이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일 못지 않게 꼭 필요한 적임자를 선출하는 일은 그 나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길이다.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시켜달라고 애원한다. 그 중에는 대통령감도 있지만 이름 석자 내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꽤 있다. 임 후보자들의 공통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자기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라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는 일자리를 늘리고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교육계를 살리고 부자들에게서 세금 더 걷어내고 이민법을 정리해서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도전자인 롬니는 처음부터 현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공격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4년을 더 기다릴 수 있느냐는 논리다. 자기는 높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를 폐지하고 외교를 강화해서 부강한 미국을 만들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후보자들도 역시 자신만이 대통령감이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 등록금을 내리고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남북간 긴장을 해결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거 공약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해 무지개 같은 청사진을 내놓는데 진정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으며 실천 가능한지,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그 공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그 공약들이 어떤 계층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100년 앞을 내다보며 하는 약속인지 궁금하다.

나는 선거 때가 되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참고한다. 즉 백성들이 당장 요구하는 것을 해결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 순위로 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실천할 사람을 뽑는다. 그 공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을 같이 사랑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어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이다.

유대인들이 족장시대를 거쳐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도자를 뽑을 때, 그 기준은 통솔력과 덕을 겸비하고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더욱 흥미있는 일은 수십만 명 되는 각 지파의 총 책임자나 1000명, 100명, 심지어 10명의 반장도 꼭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어졌는데 작은 공동체인 안디옥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도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

현재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동성연애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풍조는 백년 불행한 일이다. 한국도 표를 의식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흔드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공의와 백성들의 요구를 잘 점목시킬 지도자를 뽑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나도 투표장으로 갈 것이다.

부끄러움



임성택 목사
시애틀 아름다운교회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을 보면 거침이 없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나이더 두려움보다는 창조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일어나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위의 지켜보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은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윤활유를 뿌려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지만 서로에게 무례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치 않고 살아간다면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리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만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언젠가 인생의 큰 수치를 맞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족한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남에게 돌리는 태도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족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포기하고 절망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의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교회 세습 금지의 신학적 근거

머리말: 세습금지법 통과는 한국교회 신뢰 회복의 신호탄



김영한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 명예교수

감리교가 국내 개신교 교단들 중 최초로 목회자 가족의 교회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막는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자 390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3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교회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어느 교단 총회에서든 이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감리교가 개정된 세습금지법은 장로교와 더불어 한국 개신교 모든 교단에 적용되어야 한다. 필자는 학자요 장로교 목사로서 이러한 개정안에 찬성하고 환영하면서 이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성경적 근거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는 야훼의 언약궤를 메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구별받았다. 레위 지파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야훼가 그의 기업이였다(신 10:8-9).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나오고, 대대로 세습되어 야훼를 섬기는 직분이였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땅이나 재산을 갖지 않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갔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에서나 나올 수 있고, 소명받기 전의 직업도 다양하다. 그리고 예언자가 세습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가문의 세습으로 이루어졌다. 그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 불알이 터졌거나 한쪽 눈알이 빠졌거나 팔이 병신이거나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하지 않는 한 남자는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다른 직업은 가질 수 없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구약의 제사장이었다.

교회 세습의 합리화 근거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세습에서 찾은 것은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다. 신약 시대의 목사는 세습이 아니고 소명직(召命職)이다. 주님이 불려서 사명을 주시고 양무리를 치도록 맡기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그 아들이 반드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세습직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사(祭司) 계급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부, 세리 등을 불러 제자로 삼았

다. 사도직도 그 자식들에게 세습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의 제자들도 그 직을 세습하지 않았다. 초대교회에는 세습이 없었다. 구약성경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게 했으나 분깃이나 기업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 세습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 한꺼번에 주어지고 있다. 이것은 타락의 징조가 되는 것이다. 교회 세습을 구약의 제사장직에서 찾으려는 발상은 전혀 개신교적이지 않다.

2. 교의학적 근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권한은 세습될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그것을 세우거나 개혁한 목회자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제사장은 없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교회 직제의 제사장 신분을 보편화하였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종교개혁교회는 예수 대속의 피를 먹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보좌에 나아가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더 이상 혈육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혈통으로 계승되지 않고 믿음으로 계승된다고 말하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교회의 목회권도 교권적으로나 혈육으로 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혈육적인 세습이 정당화될 수 없다. 목회권은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가운데 소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3. 교회사적 근거

로마 천주교 주교좌성당 세습(ca-

thedral transmission)은 중세교회사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였다. 중세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주교좌성당의 세습이였다. 당시 성행하던 주교좌성당의 세습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성직자 독신주의였다. 주교좌성당을 두고 이루어지는 세습으로 인해 중세교회는 성직매매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 급기야 클뤼니(Cluny) 수도원의 일원으로 수도회 개혁운동을 주도한, 청렴한 수도승 힐데브란트(Hildebrand)가 교황으로 선출된다. 그는 그레고리 7세(Pop Gregorius VII, 1073-1085)로서 교회개혁 청사진을 담은 27개의 교황령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성직매매 금지, 속인의 주교 서임(敍任)권 금지, 사제 결혼 금지였다. 교황은 성당 세습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성직자 독신주의를 전격적으로 교회에 끌어들이었다. 1074년 그레고리 7세의 성직자 독신주의 선언은 교회의 세습 행위를 막으려는 특단의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그 때까지 교회는 수도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직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고, 권력과 명예와 돈이 모이는 주교좌성당은 중세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교좌성당 세습은 교회의 화합을 해치고, 사교회화(私敎會化)하여, 공교회성(公敎會性)을 약화시켰다. 11세기 그레고리 7세 개혁 이후, 성직자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독신으로 생활해야 했다. 12세기 중엽(1110년)에는 종교법에서 성직자-평신도의 구분을 법으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성직자는 성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목상과 기도예 전념해야 하기에 무소유자로서 세속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 이처럼 주교좌성당 세습의 차단을 위하여 성직자 결혼금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현대 한국교회는 외형은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초창기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이 희석되기 시작했다. 대형 교회 목사직은 돈과 명예·권력이 따르는 자리가 됐다. 일부 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대물림하기에 이르렀다.

맺음말: 세습 금지는 시대의 요청이며 시민의 정서, 모든 개신교단이 이에 동참해야

교회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한국교회가 지금 시대정신을 거역하면 교회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회가 바라는 건전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 소위 장자교단이라는 장로교 통합, 합동, 기장, 고신 교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기적 이상의 믿음



안인권 목사
워싱턴DC 새소망교회

말도 잘할 수 없고 먹는 것도 불편했고, 고통은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지만 암세포조차도 마가렛의 정신만큼은 소멸시키지 못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의연하게 받아들일겠다는 의미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는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일 때가 많다.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그 차원을 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며 고난과 당당히 맞서는 믿음의 수준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기적을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기적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일한 것 같으나 차이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 청년은 보여준다. 이들은 '우리를 고통의 불길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기적 이상의 믿음을 보여준다.

인류 역사에서 타락한 인간이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 이상의 기적은 없다. 구원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적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기적을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기적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일한 것 같으나 차이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 청년은 보여준다. 이들은 '우리를 고통의 불길 가운데서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기적 이상의 믿음을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마가렛 리라는 여인의 믿음만큼 도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녀는 3년 전에 갑자기 인후암 선고를 받았다. 문병 온 사람들은 그녀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 약의는 없으나 상처될 수 있는 동정의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암의 두려움과 말의 상처를 잘 이겨 나갔다. 그녀의 일기에는 도전 주는 용기있는 믿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니까요. 암세포는 사랑을 무력하게 할 수 없고, 소망을 꺾어버릴 수도 없으며, 믿음을 앗아갈 수도 없고, 평안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신뢰를 망가뜨릴 수도 없고, 우정을 박살 낼 수도 없고, 추억을 내쫓을 수도 없고, 용기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성령을 억누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엽신여길 수도 없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셋째마녀와 골고다만을 제거해 버릴 수는 없다.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할 때 부활에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계 21:4)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병들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을 당할 수도 있다.

반면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일상에서 볼 수 있다. 기적같이 죽을 병이 낫기도 하고, 절망적인 사업이 회생하기도 하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베드로의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기도 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 11:6)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고도 남는 기적 이상의 믿음을 만들어 낼 것이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원장 류재규
경산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민속과일 감, 힐링푸드로 각광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과일 감이 고혈압, 대장암 등 현대인의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은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해 웰빙 시대의 '힐링푸드'로 재조명받고 있다.

▷몸에 좋은 감, 어디에서 왔나?

사과, 포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과실의 하나로 불리는 감은 그 모양과 맛도 좋지만, 영양가 또한 풍부하다. 황금빛 옷 속에 신선 이 마시는 단물이 들어 있다고 해서 '금의 옥액(金衣玉液)'이라 불리기도 한다.

감은 중국·한국이 원산지인 동북아시아 특유의 과일이다. 재배역사도 깊어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부터 재배해왔다. 6세기 중국 농업 관련 고서인 <제민요술>에는 꽃 감 만드는 비법과 껍을 벗는 방법을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138년 고려 명종 당시, 감과 비슷하나 과실이 작은 '고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감 재배는 고려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감의 종류 '뽕은 감과 단감'

감의 종류에는 크게 뽕감이라 불리우는 뽕은 감과 단감이 있는데, 뽕은 감은 껍질이 얇고 보통 연시(홍시)나 꽃감으로 만들어 먹는 감이다.

이에 반해 단감은 껍질이 두껍고 생으로 먹는 과일이다. 단감은 추위에 더 약해 따듯

한 곳에서 많이 난다. 나무에 매달려 단단하면서도 단맛을 갖는 품종이 단감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種)이 다른 건 아니다. 뽕은 맛이 없어지는 과정, 이른바 '탈삼 현상'이 생육하면서 일어나면 단감이고, 그렇지 않으면 뽕은 감이 된다고 보면 된다.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뽕은 맛을 갖는 세포(타닌 세포)가 굳어지면서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기면 단맛을 갖게 된다.

▷감의 영양적 특성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웰빙 과일로 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뽕은감의 가공에 관심이 대폭 늘면서 수확 후 탈삼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감 식초와 감 장아찌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감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른 과일에 비해 무기성분이 풍부하고, 인체의 필수적 영양소인 비타민과 구연산이 많은 과일이다.

감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청뇨(소변을 깨끗이 하는 것), 근육의 탄력 강화 기능 등이 있다.

이밖에 숙취 제거,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은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타민C는 사과의 무려 6배에 달한다. 그러나 다른 과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신맛이 적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환절

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감을 먹으면 감기 예방에 좋다.

또 전염병 예방과 눈의 생리적 활동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감 한 개만 먹으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비타민A와 C의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하다.

수분은 83% 정도로 다른 과일에 비해 적은 편이며 당분이 14% 이상으로 대단히 많다. 당분의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이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예로부터 타닌 성분은 설사를 멎게 하고 배탈을 낫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같은 품종의 감이라도 추운 지방에서 자란 것이 타닌 함량이 높다. 또한 감에는 지혈 효과가 있어, 피를 토하거나 뇌일혈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 좋다. 타닌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에도 좋다.

당근이나 늙은 호박처럼 예쁜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식품들은 베타카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감이 과일 중에서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많다고 한다. 베타카로틴은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항산화물질로, 보통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예방해준다.

그런데 단감이나 홍시는 제철이 지나고 나면 쉽게 맛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오래 두고 먹으려면 햇볕에 말려 꽃감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꽃감으로 만들어 놓으면 간식용으로도 좋고 건강을 지켜주는 약재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꽃감은 보통 감에 비해 비타민

이 훨씬 많다. 꽃감의 흰 분말은 기관지나 폐의 점막에 좋아서 환절기 감기나 목이 아플 때 좋다. 특히 꽃감에는 성인병 예방 및 대장암 억제에 효과적인 식이섬유소가 가 식부 100g 당 2.8g으로 모든 과일 중에서 가장 풍부하다.

간혹 꽃감 표면에 생기는 하얀 가루를 밀가루나 흰 곰팡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감서리' 혹은 '시상'이라고 부르는 이 흰 가루는 한방에선 담으로 고생하거나 기침을 많이 할 때, 폐에 열이 있거나 만성 기관지염을 다스릴 때 이용한다.

그밖에 각혈이나 하혈, 딸꾹질, 속취, 백일해 등에도 효과적이라 오래 전부터 민간에서 즐겨 이용해 왔다. 딸꾹질이 계속 멈추지 않으면 꽃감 4개 정도를 삶아서 그 물을 마시면 씻은 듯이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감꼭지나 감잎도 잘만 이용하면 가정상비약으로 훌륭하다.

어린 감잎을 따서 말렸다가 끓는 물에 잘 우려내 차로 마시면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간 기능을 도와주는 데 그만이다.

단, 감은 많이 먹으면 몸이 냉해지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섭취할 때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특히 빈혈 또는 저혈압 증세가 있는 사람은 되도록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

왜냐하면, 타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 결과적으로 적혈구 생성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뽕은 감은 소화효소의 작용을 저해해 소화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할 것.

도움말: 식품동의보감(유태중 지음)

자궁건강 위해 다이어트 했는데...

생리통 더욱 심해진 이유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여성들에게 비만은 자궁건강의 적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자궁건강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표준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자궁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자궁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에 돌입하였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잘못된 다이어트는 자궁건강을 더욱 흐트러뜨릴 수 있다.

▷다이어트 후 생리통 더욱 심해진

그녀의 사연

직장인 박혜진(28세, 가명) 씨는 최근 생리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과체중인 박 씨에게 담당의는 체중이 자

궁근종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체중을 감량할 것을 권했다.

이에 박 씨가 선택한 것은 무릎 관절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 중 하나인 '아쿠아로빅'이었다. 등산이나 빨리 걷기 등의 운동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 운동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쿠아로빅을 시작하지 석 달 정도가 지나자 체중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표준보다 적게 나가는 체중을 유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체중감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도 박 씨의 생리통은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전보다 심해졌다고 한다. 체중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리통이 심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질환전문한의원 조선휘 원장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쌓이지 않게 도와주고 자궁골반내의 혈액순환을 도와 자궁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자궁내 습한 기운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자궁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체중감량 끝낸 박 씨, 생리통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만은 자궁내 순환을 방해하여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같은 자궁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상체중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자궁근종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자궁을 여성에게 있어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히 관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자궁근종의 한방치료법으로는 복용약과 더불어 침, 뜸, 한방좌약 자경단을 들 수 있다.

여성질환전문한의원 조선휘 원장은 "한방좌약 자경단은 자궁에 약효를 직접적으로 침투시켜 자궁의 정상적인 조직부분을 활성화하여 자궁의 정상적인 수축과 순환을 돕는 치료법이다"며 "이를 통해 자궁근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연관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전한다.

자궁근종치료를 반드시 운동은 필요하지 않 모든 운동이 자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생리통 등 자궁근종의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함께 체중 감량 및 자궁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등으로 정상체중 조절과 자궁근종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김은애 기자



COVER STORY

“ 아시안암환우회 손경미 회장을 만나다 ”



그녀를 알고 지낸지 4년. 그러나 손경미 사모를 만날 때마다 3번은 놀라게 되는 것 같다. 먼저는 나이에 걸맞지 않다 할 정도의 아름다움과 맑음에 놀라고 그 다음에는 그녀가 지금도 매일 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란 사실에 놀란다. 마지막으론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웃음을 갖기까지 매일같이 죽음을 연습하고 또 웃음을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에 숙연함으로 놀란다.

그녀의 삶을 한 마디로 요약하라면 주저없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 하고 싶다. 불신자 화교 시부모의 핍박을 이기고 끝내 전도해 낸 여인, 극심한 우울증도 기도로 이겨낸 그녀. 그러나 그 후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암이었다. 4년간 6번의 수술을 이겨냈지만 이어 뇌에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고통의 삶 속에서 오히려 생명과 위로를 발견한 진정한 치유자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힘, 바로 ‘사랑’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 남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헨리 나우엔의 말에는 과연 몇 명이나 긍정할 수 있을까?

손경미 사모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암을 이긴 사람이지만 지금도 암과 싸워야 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역설의 진리가 조금은 더 우리 가슴에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녀가 풀어놓는 어린 시절은 마치 요셉을 떠오르게 한다. 팔이 반드시 3대 이상 예수를 믿는 집안의 남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신앙적인 어머니, 때가 되면 양장점에 데려가 값비싼 옷을 맞춰 주시던 그런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그녀의 삶은 순탄하기만 했다.

전통무용 특기생으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대만 국립예술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뽑혔다. 그때가 1980년대 초였으니 유학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중화권 유학은 더더욱 드물었다. 유학 전 우연히 본 서울특별시립 가무단 공채에도 당당히 합격했다. 최고의 무용인이자 중화권 북음화라는 원대한 꿈을 품게 된 것도 이때쯤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꿈이 생긴 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자 고난도 주셨다. 그녀는 자신을 보고 첫눈에 반한 화교 남성과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이르게 됐다. 민족의 차이, 종교의 차이가 양가의 반대 이유였다. “불신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그날로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나 남편을 따라 이민 온 미국에서 함께 살게 된 시부모님은 신앙인 며느리를 끝내 못마땅해 했다. 온 집안에 불어린 부적에 갇혀 마치 깊은 감옥과도 같은 삶이 시작된 것

이다. 중국인 선교의 꿈을 꾸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방에 끌려온 요셉과 같은 신세가 돼 버린 것이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직전까지 갔던 그녀. 그 삶의 밑바닥에서 주님은 나약한 손경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결국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 중화권 북음화라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온갖 고난과 역경 끝에 그녀의 가정에서부터 이뤄진 순간이었다.

이후 대만대학에서 전자공학을 했던 공학도인 남편이 텍사스 사우스웨스턴신학교에 입학해 신학을 공부하고 남침례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를 구사하는 남편은 한인교회, 중국인교회, 화교교회 등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했고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아내도 남편을 내조하며 하나님의 꿈이 이뤄져 갔다.

그런데 이런 성공 끝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암을 선물로 주셨다. 그녀는 암의 고통을 안다. 유방암으로 그 고통이 체가 시기도 전에 난소에 암의 징후가 생겨 난소를 제거했다.

이렇게 하기를 4년간 여섯번의 수술... 그 독하다는 항암치료도 신앙의 힘으로 견뎌냈다. 암을 이긴 후, 그녀는 암환우에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누구도 알려주지 못하는 고통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단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주변의 암환우들을 한명씩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다.

시카고에서 시작된 이 사역은 총 250명의 회원이 참여하게 됐고 현재 아시안암환우회란 이름으로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다.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의 가족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사역은 회비도 없고, 특정한 후원단체도 없다. 그저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위로

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디든 찾아 다니다 보니 워싱턴지부, 밴쿠버지부, LA지부까지 세워졌다.

그녀는 암환우회에서 암을 이긴 입지전적인 인물의 모습이 아니다. 긴 시간동안 반복된 수술과 항암치료, 7년이 넘는 약물치료에 이어 뇌종양이 발견됐다. 수술하기엔 너무 위험해서 그저 두고 볼 수밖에 없으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있을까? 암을 이기고 또 이겼지만 이후에 또 다른 암이 찾아온 셈이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과 함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진다”고 하신다.(고후12:9) 하나님은 암환우들을 온전히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을 위해 그녀에게서 암을 절대 거두어 가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손 사모를 통해 드러내고 계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 사모를 ‘신들린 사람’이라고 부른다. 곧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할 사람이 전 미주, 이젠 한국까지 다니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치유자로 세우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산소호흡기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녀 스스로 매일 같이 증명해 간다. 맞다. 신들린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들려서 때론 죽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죽음은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있음을 삶으로 보여 주고 있다.

최근 그녀는 ‘With You.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생명의말씀사)란 책을 펴냈다. 자신의 삶과 암환우회의 사역을 써내려 간 이 책은 정말 투병 중인 사람이 쓴 책인가 싶을 정도로 담담하면서도 감격적인 어조로 성령의 일을 펼쳐 내고 있다.

현재는 LA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와 전화

통화를 했다.

“내일 시애틀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이제 책도 나왔으니 수익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누가 큰 현금으로 돕는 사람은 없어도 작은 사랑이 모여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또 갈 수 있게 됐어요. 시카고에서 가을에 있을 음악회와 간담회도 준비해야 하고요.”

책 발간 후 수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시안암환우회는 차량에 스티커 붙이기 캠페인, 암환우를 위한 소액 후원 운동 등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녀와 알고 지낸지 벌써 4년째다. 매번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마지막 인사는 “다음에 또 만나요”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사는 그녀에게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한다는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김준형 기자

▷후원 및 참여 문의: 김자혜 미주지역 총책임간사 425-248-5129



손경미 | 생명의말씀사 | 240쪽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하십니까!!!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팔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0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움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 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 222-9792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드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녹과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수질안전, 미온 알칼리수, 경제성 확보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먹고 마르기도 하는 알로에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광고 디자인이 필요하세요?

신문광고/ 잡지광고/ 브로셔/ 온라인홍보물

213.814.1342
213.587.3498
kp.rodemh@gmail.com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생활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드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7월 21일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www.GoSmartworld.com **스마트 월드**

건강 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식은 살리니! 자동차 연료 커버 \$30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데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름니다! **삼성통운**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문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찹쌀,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똑똑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인기만점

예상치 못했던 교통 사고나 각종 차량 안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

요즘 차량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개인은 물론 기업과 회사, 교회 등 각종 단체에서 각광받고 있다. 자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정확한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것이 또한 특징이다. 따라서 이 블랙박스가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블랙박스는 차량의 창문에 부착하고 시거잭을 통해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구동될 정도로 설치가 간편하다. 종류는 여러가지다.

POWERUCC 모델은 5백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전방을 녹화하며 녹화된 영상은 즉각 확인이 가능하다. 야간에 발생한 상황도 정확하게 녹화가 되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인타운 내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현금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신종 사기 등에 대처하기에 적합하다.

CARPA120 모델은 차량의 전

<p>CARPA 120 (2CH) 전방 / 실내를 촬영 가능한 블랙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을, 자녀들의 운전습관 모니터링 가능 - 학원차, 택시 등 승객의 모니터링 가능 	<p>CAIDROX (CD-3000) 전방 / 후방을 촬영 가능한 블랙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방 카메라로 차량의 후방도 촬영 가능 - 택배, 이사차 차의 화물도 감시 가능
<p>SIV-M7 GPS 4G 스마트폰에서 영상확인 가능한 블랙박스</p>  <p>Micro SD카드로 스마트폰에서 바로 영상 확인 초소형 원통형 디자인</p>	<p>SMARTY (BX1000 PLUS) Google에서 Trace가 가능한 블랙박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본, 영국 등 50여개국 수출 - 호주 유명 레이싱팀에서 교육용으로 사용

방과 실내를 촬영한다. 차량 내부가 촬영되기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어린이들을 픽업하는 학원 차량이나 택시, 단체 버스 등에는 오히려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한 운전자가 없이 운행되는 교회 차량, 회사용 차량 등에 유용하다.

CAIDROX는 전방과 후방을 녹화한다. 택배나 이사차 차량에 설치하면 화물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XDriven같은 모델은 GPS와 구글맵 등을 내장해 녹화기능은 물론 운전 습관 분석과 주행 경로 및 기록 분석까지 가능하다. 문의: 213-382-1100, 213-235-7836

하늘 소리 땅에 비추어

10월 18-27일 기독교미술인 협회 작품전 열어



〈생명의 양식〉 강은희 작

깊어가는 가을, 신앙인들의 예술적 감수성의 회복을 돕는 작품전이 열린다.

기독교미술인협회(Association of Christian Artists)는 10월 18일부터 17일까지 웨스턴 갤러리에서 작품전을 개최한다.

기독교미술인협회 박정근 회장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고 심오한 것을 창조하시며, 인간도 창조하기를 원하신다. 기독교미술인들의 작품을 통해 맑고 밝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새롭고 조화로운 이웃 사회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 예술을 만든다. 겉집이 아닌 진실을 담은, 어떠한 벽도 넘을 수 있는 기독교적 영성

을 담은 편지로서의 전시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주최측은 “기독교 예술이 생명나무로 살아나 교회 밖으로 확장되길 바란다. 이번 작품전을 통해 영성과 예술이 새롭게 융합, 회복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리셉션은 19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배학기, 이종남, 조분연, 진희배, 박영구, 이현진, 박용숙, 임희안, 신정연, 현해명, 정석란, 그레이스 임, 이윤경, 박재진, 에이미 김, 손미경, 헬렌 송, 우영옥, 김윤옥, 주디 신, 박정근 등이 참가한다.

웨스턴 갤러리: 210 N. Western Ave. #201 Los Angeles CA 90004
문의: 818-421-3536

VCS, 중남미 및 LA서 사랑의 무료개안수술

2013년 4월 예정 백내장 환우 무료 개안수술 캠프, 지금부터 접수 시작



비전케어서비스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 캠프에 함께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서비스(VCS) 미주서부지사(이사장 알렉스 장)가 지난 16일 오후 7시 JJ그랜드호텔에서 사업설명회 행사를 개최했다.

비전케어서비스(VCS)는 보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인종, 종교, 국가를 초월해 인술을 펼치는 의료구호단체로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24개

국에서 실명예방과 백내장 수술 등 무료개안수술을 펼쳤다. 100차례 무료 안과캠프를 통해 7만여명 외래진료, 9200회의 수술, 참여 의사만 300여명이 넘는 단체다. VCS 미주서부지사는 LA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 출범해 2차례의 멕시코 캠프를 통해 230명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올해 5월에는 LA캠프를 통해 14명의 환우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펼쳤다.

VCS 사업설명회 행사는 서영석(라

크레센타 시위원)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VCS 설립자인 김동해 원장이 직접 방문해 VCS의 설립배경과 활동을 소개했다.

VCS 미주서부지사는 내년도에는 총 2회의 캠프를 직접 주관할 예정이며, 미주법인과 함께 총 6회의 중남미와 아프리카 캠프를 진행한다. 특별히 내년 4월 중 LA지역에 의료보현 혜택을 받지 못한 백내장 등 안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제 2회 사랑의 무료 개안수술 캠프를 펼칠 예정이다.

VCS는 “백내장으로 시력에 어려움이 있는 환우는 지금부터 미리 등록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수술 일정이 정해지면 캠프 참가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알렉스 장 VCS 미주서부지사 이사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아이캠프를 위한 후원 및 의료진과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 213-281-2617

한주연 기자



〈선교지에서 포옹〉 배주연 작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기부천사 **김장훈**이 선택한 아이토크비비

더 강력한 혜택! 계약이 필요없다!

지금 아이토크비비에 가입하시면~

- 1 최대 \$100크레딧 제공*
- 2 계약기간 없이 사용!*
- 3 휴대전화 2대로 국제전화 가능!

행사기간 **2012년 10월 31일 까지**

[30일 한달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100크레딧: 글로벌플러스플랜 가입자에 한해 \$100 크레딧을 드리며, 그 외 가입 플랜에 따라 해당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해당 무료 크레딧은 13번째 달에 적용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에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 (기타수수료 및 부가요금, \$2.95/월)이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계약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아이토크비비 공식 홍보대사 가수 **김장훈**

최대 크레딧 **\$100*** 드립니다!

중영일보/인사이드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스(미국)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글로벌 플랜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34.99/월**

▶ 한국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통화

무료 부가서비스

▶ **iTalkM**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번호 없이 빠르게 편리하게 국제전화를 드림 나왔다 iTalkM!

▶ **마이코리아넘버 My Korea Number**** 한국 070 전화가 필요없다! 나만의 한국 전화번호를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고객지원센터 1.800.875.8318

사업자 문의 703.348.7544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동부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2012년 서부지역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딜러에서는 경험할수조차 없는 다양한 혜택과 감동,
오늘 푸엔테힐스에서 누리십시오.

+ TAX(STK.050068)
\$596 **NEW**

골프장 무료 라운딩 쿠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10월 1일 - 31일)

평생 무료 세차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한지 1년이 되셨습니까?
- 미국 현역 군인 이십니까?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 다른 워런터를 사셨습니까? 등록비를 따로 내십니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현재 다른 딜러들의 광고 가격은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푸엔테힐스현대에서는 광고 그대로 드립니다.

2012 EQUUS ULTIMAT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66,650 / Residual: \$30,659 / T.D.O: \$5,399
Plus Comp Rebate /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ER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5개 획득

2013 SONATA GLS

\$121 + TAX(STK.558019)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20,010 Residual: \$12,326
T.D.O: \$3,999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2012 GENESIS 3.8L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246 + TAX(STK.203934)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35,210 Residual: \$17,253
T.D.O: \$3,999 / Plus Comp Rebate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길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M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